



일본의 해외 진출 전략 및 시사점

I. 서론	1
II.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5
III. 현지법인 경영현황	9
IV. 일본의 해외진출 전략	13
V. 한·일간 투자내용 비교	24
VI. 시사점	31

작성 : 선임조사역 김유신 (3779-6667)
echis@koreaexim.go.kr

확인 : 팀장 선우유민 (3779-6664)
eumin@koreaexim.go.kr

요 약

1.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 (개관) '11년말 기준 투자 잔액 9,628억불로 세계 7위에 해당

-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사상 초유의 엔화 절상('85년 달러당 240엔에서 1년 후 120엔으로 평가 절상)으로 수출채산성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생산기지 이전과 M&A 투자 증가
- '90년대~'00년대 초반은 내수경기 회복으로 국내 투자가 증가하고 일부이긴 하나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U턴 사례가 발생하며 다소 둔화되었으나 중국 중심의 현지 생산 확대
- '00년대 중반부터 일본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국제 경쟁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신흥국 진출 확대 추세

□ (최근 동향) 신흥국으로의 전략 변화, 대지진 이후 공급망 붕괴로 인한 생산기반 해외 이전 가속화로 최근 해외투자 확대

- '11년 전년대비 90.1% 증가한 1,088억불, '12년 전년대비 12.5% 증가한 1,224억불 기록
- 금융위기 이후 전체 투자가 급감하는 중에도 4년 평균 15.2% 증가율로 아시아 투자는 견고하였으며, 중국, 태국 중심에서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투자 국가 다변화
- 제조업 투자는 연 평균 7.9%의 빠른 회복세를 시현하였으며, 가공 조립 산업에서 소재, 부품, 장치 산업으로 확대
- 비제조업은 연 평균 17.3% 증가하였으며,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투자 증가

- (현지법인 경영현황) '02~'07년까지 현지법인 매출액은 138조엔에서 236조엔으로 1.7배, 당기순이익은 1.6조엔에서 7.7조엔으로 4.8배 증가
 - 최근 10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금융위기 이후 급감하였던 당기순이익은 2010~2011년 빠르게 회복
 - 제조업 현지법인의 매출은 현지판매 중심('11년 비중 62.6%)이며, 매입구조 역시 현지조달 중심이나 매출에 비해 일본 거래 비중이 높음

2. 한·일간 투자내용 비교 ('11년 기준)

- 투자금액 및 잔액: 일본, 우리나라 투자잔액의 6배
 - 일본 : 투자잔액 9,628억불, 투자금액 1,224억불
 - 한국 : 투자잔액 1,593억불, 투자금액 232억불
- 지역별 투자 비중: 일본, 선진국 투자비중 높아
 - 일본 : 북미 27.4%, 아시아 29.3%, 유럽 25.3%, 중남미 9.0%
 - 한국 : 아시아 46.1%, 북미 22.4%, 유럽 17.1%, 중남미 7.7%
- 업종별 투자비중: 일본, 제조업 투자 비중 상대적으로 높아
 - 일본 : 제조업 40.3%, 광업 17.0%, , 도소매업 15.0%, 금융보험업 11.6%
 - 한국 : 제조업 34.8%, 광업 19.6%, 도소매업 12.2%, 금융보험업 8.7%
- 수출액 대비 현지법인 매출액 비율: 일본, 세계화 성숙단계 진입
 - 일본 : 매출액 2조 2,843억불(총 수출의 278.0%)
 - 한국 : 매출액 5,535억불(총 수출의 99.7%)
- 현지법인 당기순이익(수익성): 일본 현지법인, 수익성 압도
 - 일본 : '05년 467억불(2.8%) → '11년 925억불(4.0%)
 - 한국 : '05년 6억불(0.3%) → '11년 123억불(2.2%)

3. 일본의 해외진출 전략

☐ 해외 생산 비중 확대

- 일본 국제협력은행에 따르면 '12년 해외생산비중은 32.6%로 '01년 대비 8.0%p 상승하였으며, 2015년 37.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서플라이체인 재구축

- 동일본 대지진, 태국 대홍수 등으로 생산에 큰 타격을 받은 일본 기업들은 국내 소수의 부품 업체에 집중되어 있던 서플라인 체인을 다각화하고 부품을 표준화함으로써 생산리스크 분산 추구

☐ 현지화 강화

- 과거 단순 저임노동 활용을 위한 해외투자에서 현지 시장 개척 및 선점을 위한 해외투자로 전환하는 한편, 해외 R&D 센터, 판매망, 현지인 채용 등을 확대하여 경영 전반에 걸친 현지화 도모

☐ 세그먼트 마케팅 전개

- 금융위기로 인한 선진국 경기침체로 선진국 고소득 시장 중심에서 불륨존(신흥국 중산층)을 중심으로 국가별·소득 계층별로 품질 및 가격 차별화 하는 마케팅 전략 구사

☐ M&A 강화

- 금융위기 이후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판매, 기술 확보 및 해외자원개발 등 3개 분야에서 M&A를 강화

☐ 패키지형 해외진출

-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 투자에 대해서는 ODA나 정책 금융 지원, 외교라인 등 All Japan 종합 지원 패키지로 추진

4. 시사점

☐ 일본, 엔저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는 지속될 전망

- 엔저가 일본 해외투자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기존의 국내 경영환경 악화, 지진 발생으로 인한 서플라이 체인 재구축, 신흥국 중산층을 겨냥한 기업 경영전략의 변화로 해외투자 증가 지속 전망

☐ 우리 기업과의 해외시장 경쟁 불가피

- 일본 기업의 중품질, 중가격 제품 정책으로 신흥국에서 우리 기업들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바, 적극적인 신흥국 해외투자를 통한 시장 선점, 현지 수요에 맞는 유연한 제품 개발, 현지조달 체제 강화 등을 통한 전략적 대응 필요

☐ 일본 기업 앞 부품 공급 및 협력 강화

- 일본 기업의 서플라이 체인 재구축과 관련하여 우리 부품업체들의 일본 기업 앞 제품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부품, 소재, 첨단 산업 관련 기업의 대 한국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일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모색

☐ 해외투자의 질적 성장을 통한 우리 기업의 세계화 추진

- 우리 기업의 최근 해외투자가 현지 시장 진출 목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법인의 수익성 제고와 배당금의 국내 회수 등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
- 생산 뿐만 아니라 R&D, 현지 유통망, 서비스 등 전후방 연관 산업으로 투자를 다변화하고 해외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질적 성장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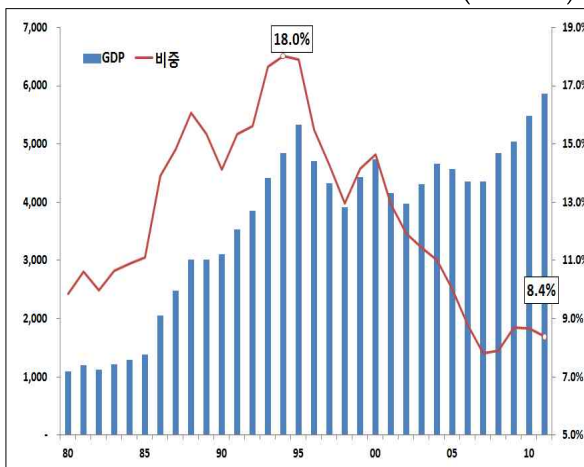
□ 일본 경제의 국제적 위상 저하

- 세계 GDP에서 일본의 비중은 1994년 18.0%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장기 경기침체 여파로 2011년에는 8.4% 까지 하락
-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6년 8.8%에서 2011년에는 4.0%까지 하락하였으며, 2011년에는 31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 전환

일본의 거시 경제 지표

<일본의 GD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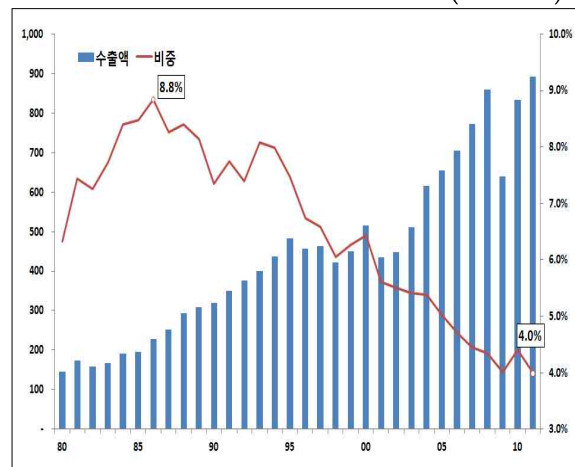
(십억불)



자료: 세계은행

<일본의 수출 추이>

(십억불)



자료: 세계은행

□ 일본 기업은 갈라파고스화¹⁾ 현상으로 경쟁력 하락

- IT 제품을 중심으로 일본이 개발한 제품의 초기 단계에서는 세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였으나, 상용화 단계 이후에는 점유율이 급감
- 세계적인 기술 표준화와 국제 수평분업화 추세에 순응하지 않고 독자 기술과 공정을 고집한 전략적 실패에 원인

1) 갈라파고스는 남태평양의 섬이며, 독자적으로 진화한 종들이 육지와와의 빈번한 교류로 외부종이 유입되지 않음 위기를 맞은 생태계 상황을 일본 경제에 빗대어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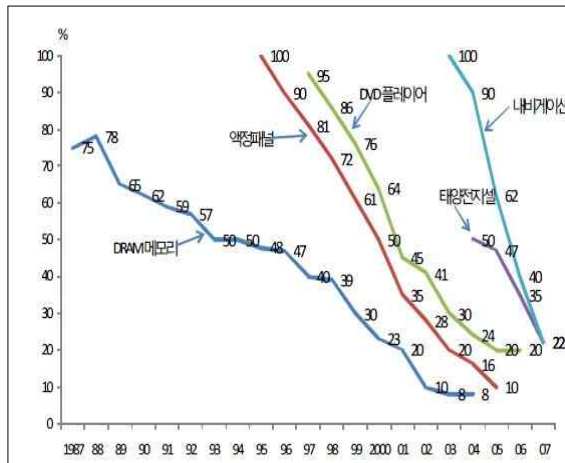
일본의 주요 경제 지표

<일본 IT 제품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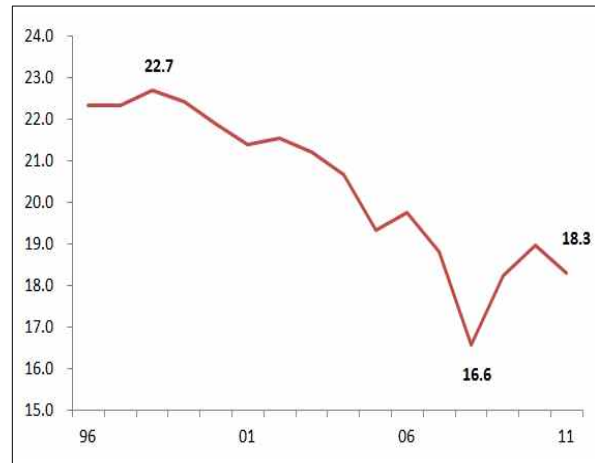
<제조업 부가가치율>

(%)

(%)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 일본 재무성

□ 일본은 인접 국가로서 한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 유지

- 일본 기업은 IT,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에서 경쟁 관계
 -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 상위 100대 품목 중 절반 가량이 일본의 상위 100대 품목과 중복되며, 동 품목의 수출이 우리 총수출의 50% 이상을 차지
 - 수출경합도 지수²⁾는 2008년 0.456에서 2011년에는 0.481로 상승하여 양국간 수출 상품의 경쟁이 지속 심화
- 대일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03년 190억불에서 2012년 256억불로 확대되어 무역수지 적자 구조가 고착화
 - 2012년 대 일본 부품소재 수입액은 374억불로 우리나라 전체 부품소재 수입액의 5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품소재 대 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2003년 139억불에서 2012년 222억불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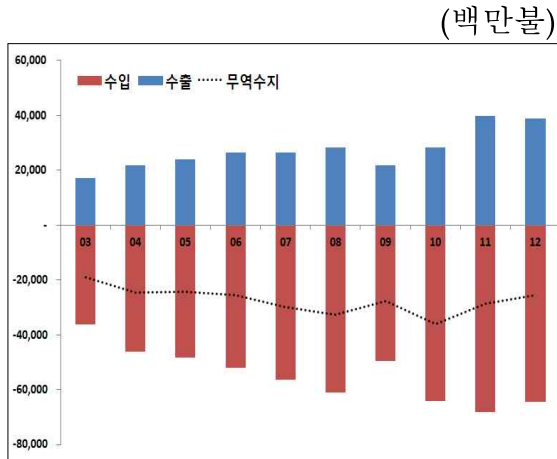
2) 수출경합도 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는 국가 간 수출상품의 경합관계를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두 나라의 수출은 경쟁적인 상태에 있음을 의미

$$\sum_{i=1}^n \min(X_a^i / X_a, X_b^i / X_b), X_a : a\text{국의 총수출액}, X_a^i : a\text{국의 } i\text{상품에 대한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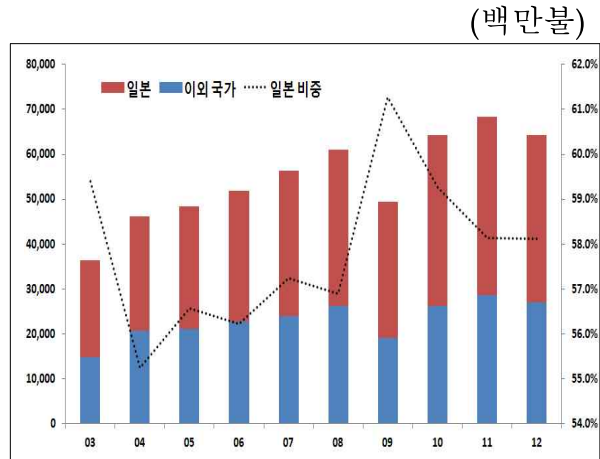
대 일본 수출입 추이

<무역수지>

<부품소재 수입액>



자료: 무역협회



자료: 부품소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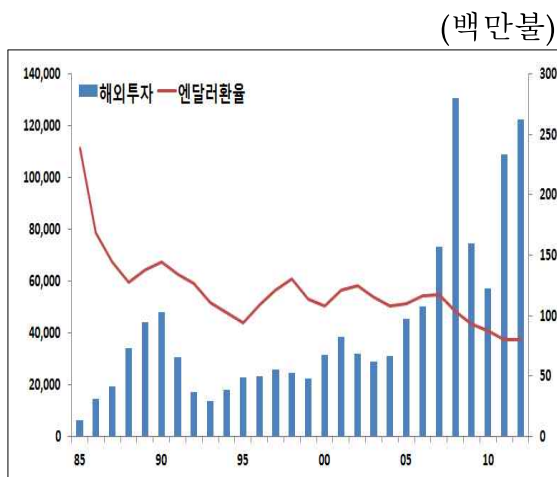
□ 일본 기업은 지속적으로 해외투자 확대

- 일본은 1950년대부터 해외투자를 시작하여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본격화³⁾되었으며, 무역마찰 회피, 엔화 강세, 국내 생산 여건 악화, 현지 판매 등 목적으로 투자규모 확대 지속
- 제조업의 해외사업활동이 1960~70년대 수출·선진국 시장 모델에서 1980~90년대 해외생산·선진국시장 모델로 2000년대 이후에는 해외생산·신흥국시장 모델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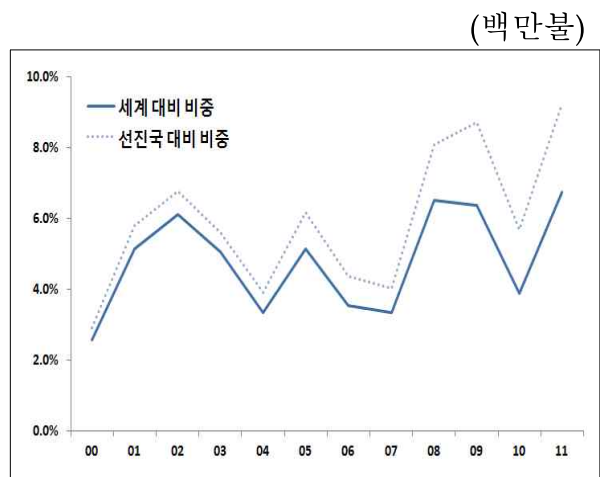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환율 및 투자 추이>

<전 세계 및 선진국 대비 비중>



자료: 일본 무역진흥회



자료: UNCTAD

3) 사상 초유의 엔화 절상(85년 달러당 240엔에서 1년 후 120엔으로 평가 절상)으로 수출채산성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생산기지 이전과 M&A 투자 증가

□ 본고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해외사업 현황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의 비교 분석을 실시

- 일본 해외투자의 최근 동향, 지역 및 산업별 투자 현황, 한일간 비교, 투자 전략 분석을 통해 일본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2. 통계 활용의 주의점

□ 해외직접투자 통계는 국가별 기준이 다소 상이

- 본 고에서는 UNCTAD, IMF, OECD, 일본은행, 일본 무역진흥회,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통계를 활용하였으나, 작성 기준⁴⁾ 및 적용 환율 차이로 인해 통계 수치가 다를 수 있으며, 국가간 비교에 있어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음

4) 해외직접투자 통계는 통상 각국의 중앙은행이 순액 기준의 국제수지표의 수지 항목으로 발표하며, 수출입은행 통계는 총액 방식이라는 점, 일본의 경우 수익재투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은 이를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II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1. 개관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잔액은 2011년말 기준 9,628억불로 세계 7위⁵⁾에 해당하며, 이는 전 세계 잔액의 4.5% 비중 차지

- 1990년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세계 해외직접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장기 경기 침체 여파 등 영향으로 1990년 3위(9.6% 비중)에서 2011년 7위(4.5%)로 하락

주요 국가의 해외직접투자 잔액

(백만불)

국가	'90	순위	'00	순위	'11	순위
미국	731,762	1	2,694,014	1	4,499,962	1
영국	229,307	2	897,845	3	1,731,095	2
독일	151,581	4	541,866	4	1,441,611	3
프랑스	112,441	5	925,925	2	1,372,676	4
홍콩	11,920	18	388,380	5	1,045,920	5
스위스	66,087	8	232,161	9	991,966	6
일본	201,441	3	278,442	7	962,790	7
한국	2,301	32	21,497	26	159,339	25

자료: UNCTAD

-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사상 초유의 엔화 절상('85년 달러당 240엔에서 1년 후 120엔으로 평가 절상)으로 수출채산성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생산기지 이전과 M&A 투자 증가
- 1990년대~2000년대 초반은 내수경기 회복으로 국내 투자가 증가하고 일부이긴 하나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U턴 사례가 발생하며 다소 둔화되었으나 중국 중심의 현지 생산 확대
- 2000년대 중반부터 일본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국제 경쟁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신흥국 진출 확대 추세

5) 일본보다 투자잔액이 많은 홍콩, 스위스는 조세피난처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5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2. 최근 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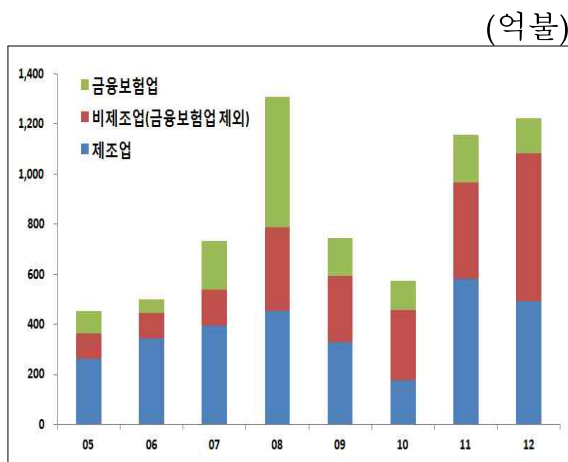
□ 동일본 지진 이후 해외투자 회복세 뚜렷

- 금융위기 이후 급감하였던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금액은 2011년 전년대비 90.1% 증가한 1,088억불, 2012년은 전년대비 12.5% 증가한 1,224억불로 빠르게 회복되며, 역대 최고치인 2008년 1,308억불에 근접
- 신흥국에서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일본기업의 해외투자 전략 변화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2011년 7월 태국 대홍수 이후 공급망의 붕괴가 생산 기반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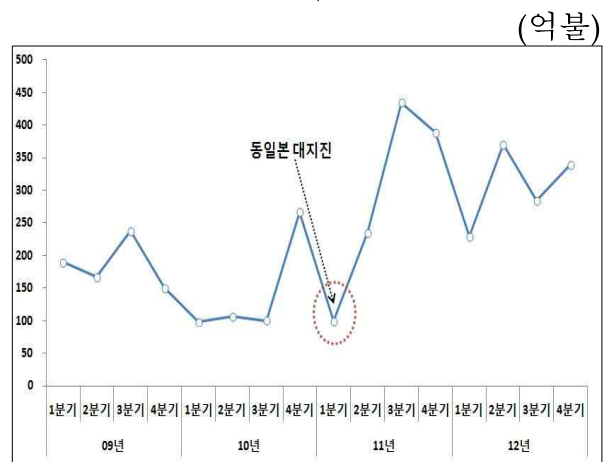
최근 일본의 해외투자 추이

<연도별>

<분기별>



자료: 일본 무역진흥회



자료: 일본 무역진흥회

□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업종 전반 투자 회복

- 2011년 제조업 투자금액은 580억불로 전년 대비 255.5% 증가하여 2008년의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바 있으며, 2012년은 15.0% 감소한 493억불 기록하였으나,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
- 금융위기 이후 최근 4년간 화학/제약(평균 2.9%), 철강(18.7%), 일반기계(36.0%), 전기기계(5.3%), 운송장비(3.3%) 등 주요 업종에서 꾸준한 증가세 기록

- 특히 과거 자동차, 전자 등 최종 제품 조립 분야에서 최근에는 화학, 철강, 일반기계 등 소재, 부품, 장치 산업으로 확대
- 비제조업은 2011년 46.6% 증가한 578억불, 2012년에는 전년대비 26.5% 증가한 731억불 기록
- 특히 광업(평균 47.9%), 도소매업(27.0%)에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금융보험업은 2008년 522억불⁶⁾ 기록 후 급감하였으며 금융보험업 투자를 제외할 경우 최근 2년간의 투자금액은 금융위기 이전을 크게 상회
- 최근 들어 음식업, 관광업, 편의점 등의 서비스업 해외진출도 활발하게 진행

일본의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백만불)

	'05~'08 평균	'09	'10	'11	'12	증감율
제조업	36,360	32,934	17,803	57,952	49,250	7.9
식품	4,772	8,954	2,017	8,149	2,364	-16.1
화학/ 제약	5,792	7,407	7,902	19,618	6,494	2.9
철강	2,120	3,738	3,873	5,017	4,206	18.7
일반기계	2,332	4,411	4,385	5,655	7,979	36.0
전기기계	5,446	2,505	1,361	7,334	6,707	5.3
운송장비	9,201	566	-3,582	4,132	10,465	3.3
정밀기계	1,271	609	51	2,791	3,219	26.1
기타	5,427	4,743	1,796	5,255	7,815	9.5
비제조업	38,617	41,717	39,420	57,780	73,102	17.3
광업	4,380	6,482	9,061	16,477	20,934	47.9
통신	-78	3,870	9,899	-1,799	7,208	-
도소매업	7,054	8,418	1,946	12,407	18,372	27.0
금융보험업	21,622	15,463	11,397	19,111	14,210	-10.0
기타	5,639	7,483	7,117	11,583	12,378	21.7
합계	74,977	74,650	57,223	108,808	122,355	13.0

자료: 일본 무역진흥회, 세부 자료는 별첨 참조

주: 증감율은 '05~'08년 대비 연 평균 증감율

6) 2008년 4/4분기에만 금융보험업이 340억불을 기록하여 이 시기에 대규모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추정

□ 중국, 한국, 아세안 국가 등 대 아시아 투자 견고

- 금융위기 직후 전체 투자금액이 급감하는 중에도 아시아에 대한 투자는 견고한 모습을 유지한 바 있으며, 2011년 395억불, 2012년 335억불 기록
- 금융위기 이후 국가별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 20.6%, 한국 23.3%, 태국 △29.3%, 베트남 47.1%, 인도네시아 42.6%, 인도 9.4% 등을 기록, 최근 들어 중국, 태국 중심에서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투자 국가가 다변화되는 추세

□ 북미, 유럽, 대양주 지역도 투자 회복

- 2012년 북미 358억불, 유럽 335억불, 대양주 111억불을 기록하여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초과하였으나,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지역은 여전히 투자가 침체
- 주요 국가별 연평균 증가율은 미국 11.8%, 영국 24.2%, 이태리 2.9%, 브라질 16.3%, 호주 42.8% 등을 기록

일본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백만불)

	'05~'08 평균	'09	'10	'11	'12	증감율
북미	21,697	10,889	9,016	15,166	35,768	13.3
아시아	19,023	20,636	22,131	39,492	33,477	15.2
유럽	17,665	17,830	15,043	39,841	31,017	15.1
대양주	2,983	7,629	6,407	8,767	11,075	38.8
중남미	12,014	17,393	5,346	11,287	10,454	-3.4
기타	1,597	274	-720	-5,745	564	-22.9
합계	74,977	74,650	57,223	108,808	122,355	13.0

자료: 일본 무역진흥회, 국가별 자료는 별첨 참조

주: 증감율은 '05~'08년 대비 연 평균 증감율

III

현지법인 경영현황

1. 매출액

□ 현지법인의 매출액은 2001년 138조엔에서 6년만인 2007년에 236조엔까지 1.7배 증가

○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 침체로 2008년 202조엔, 2009년 164조엔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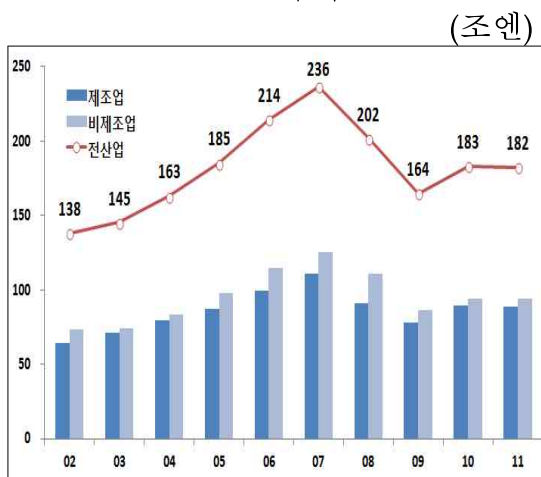
- 아시아 지역 현지법인은 2006년 북미를 제치고 현재까지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8년~2009년 북미와 유럽 매출액이 급감하는 동안 아시아와 BRICs 국가 매출은 상대적으로 양호

- 아시아 지역의 매출액 비중은 2002년 29.0%에서 2011년 43.8%로, BRICs 국가 비중은 2004년 7.1%에서 2009년 21.0%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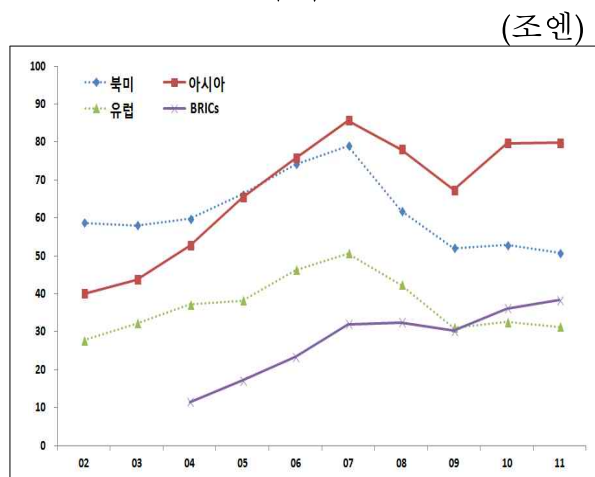
일본 현지법인의 매출액 추이

<전 지역>

<지역별>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2. 제조업 현지법인의 매출입 구조

□ 제조업 현지법인의 매출은 현지 판매 중심

○ 2011년 기준 현지 판매 비중이 62.6%, 제3국 판매 비중이 26.1%이며, 일본 수출 비중은 11.2% 불과

- 2002년과 비교하여 현지판매 비중이 소폭 하락하고, 제3국 판매와 일본 수출 비중이 소폭 상승

일본 제조업 현지법인의 매출 구조

(%)

	일본	현지	제3국
02년	9.8	66.1	24.0
11년	11.2	62.6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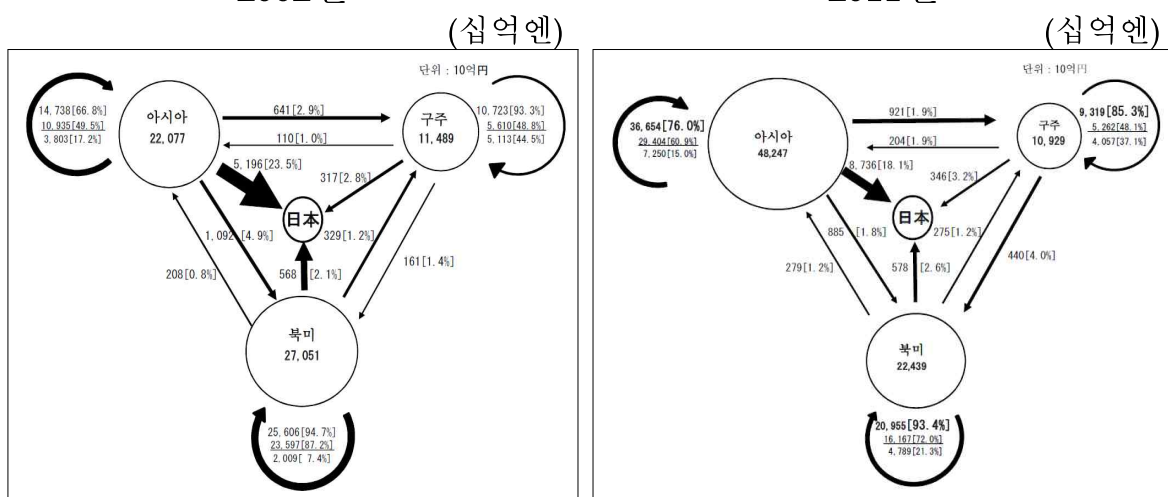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 역내 판매를 포함한 현지 판매 비중은 북미 93.4%, 유럽 85.3%, 아시아 76.0%
- 2002년과 비교하여 아시아 현지법인의 현지 및 역내 판매 비중이 9.2%p 상승하고, 일본 수출(역수입) 비중은 5.4%p 감소하여 아시아가 생산기지 기능에서 소비시장 기능으로 변화
- 북미와 유럽 현지법인의 현지판매 비중은 각각 1.3%p, 8.0%p 하락하고 일본 수출 비중은 각각 0.5%, 0.4% 증가

제조업 현지법인의 매출 구조

<2002년>

<2011년>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7) 역내 판매·매입은 제3국 수출·입 중 지역내 판매·매입을 의미

□ 매입 구조 역시 현지 조달 중심이나 매출에 비해 일본 거래 비중이 높음

- 2011년 기준 현지 매입 비중이 58.3%, 제3국 매입 비중이 14.1%이며, 일본 수입 비중은 27.6%
- 2002년과 비교하여 일본으로부터의 조달 비중이 감소하고 현지 조달 비중이 증가

일본 현지법인의 매입 구조

(%)

	일본	현지	제3국
02년	34.3	51.5	14.2
11년	27.6	58.3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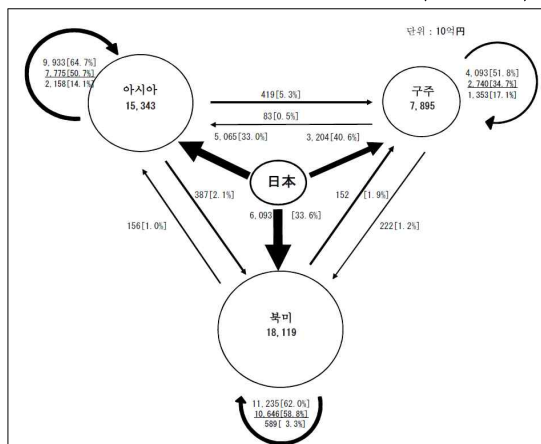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 역내 매입을 포함한 현지 매입 비중은 아시아 71.2%, 북미 65.5%, 유럽 62.7%
- 2002년과 비교하여 현지매입 비중이 아시아 6.5%, 북미 3.5%, 유럽 10.9% 증가한 반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아시아 6.1%, 북미 4.9%, 유럽 11.1% 감소하여 주요 지역 모두에서 현지 조달을 강화

제조업 현지법인의 매입 구조

<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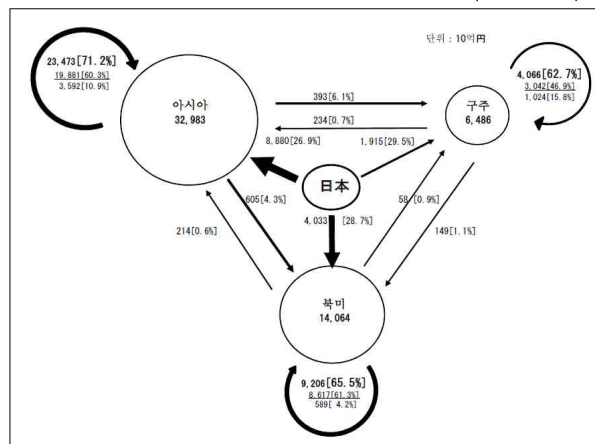
(십억엔)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2011년>

(십억엔)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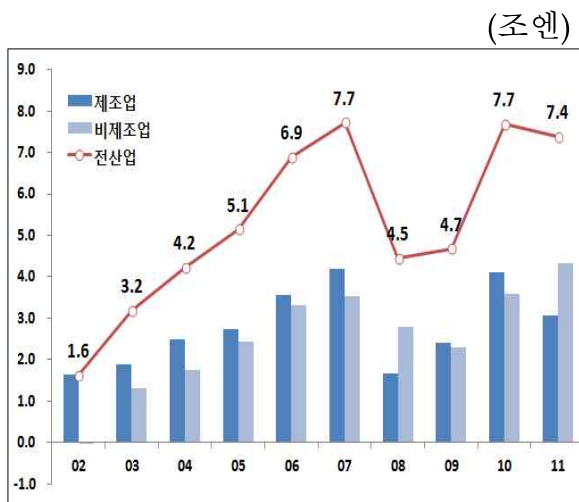
3. 당기순이익

- 2007년 7.7조엔 기록 후 2008년 4.5조엔으로 급감하였으나, 2011년 7.7조엔, 2012년 7.4조엔으로 빠르게 회복
- 10년 연속 아시아 현지법인의 이익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미와 유럽도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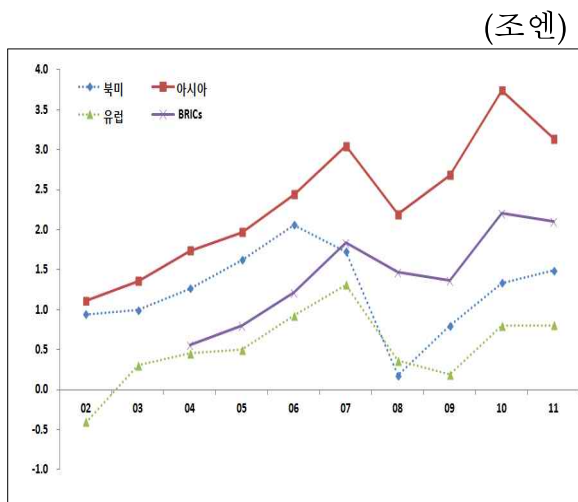
일본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 추이

<전 지역>

<지역별>



자료:일본 경제산업성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VI

일본의 해외진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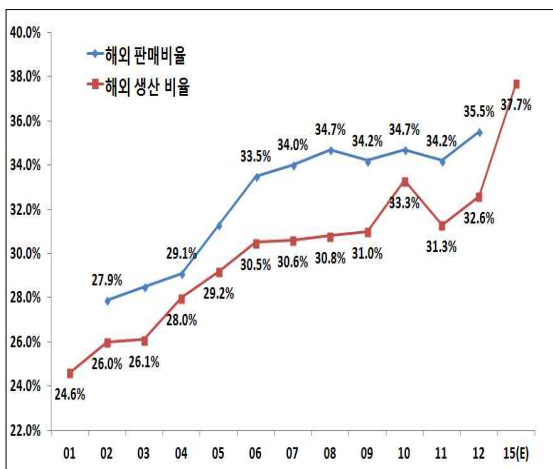
현지생산 확대

□ 해외 생산 비중 증가 추세 지속

- 일본국제협력은행에 따르면 2012년 해외 생산 비중은 32.6%로 2001년과 비교하여 8.0%p 상승
- 주요 업종의 해외 생산 비중은 전기전자 제조업 46.6%, 자동차 35.2%, 일반 기계 25.9%, 화학 25.1%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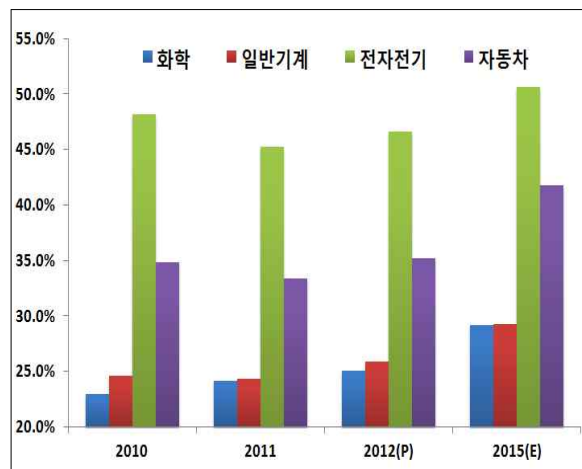
해외 생산 비율

<전체 업종>



자료: 일본 국제협력은행

<주요 업종>



자료: 일본 국제협력은행

- 일본 제조 업체들은 향후에도 해외 진출을 확대할 계획으로 일본 국제협력은행은 해외생산비중이 현재 32.6%에서 2015년 37.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일본 국제협력은행 조사에 따르면 향후 3년간 해외 사업 확대 계획인 기업은 전체의 84.4%에 달하며, 축소 계획인 기업은 0.9%에 불과
- 반면 국내 사업 확대 계획인 기업은 25.7%에 불과하며 유지 계획인 기업이 5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도요타 자동차의 해외 생산 확대 사례

- 도요타 1988년 미국 켄터키 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2012년말 현재 27개국 50여개 생산법인을 운영 중
- 2002년 해외 생산비중은 38.2% 수준이었으나 2007년에는 국내 생산 비중을 추월하였고 2011년에는 60.2%까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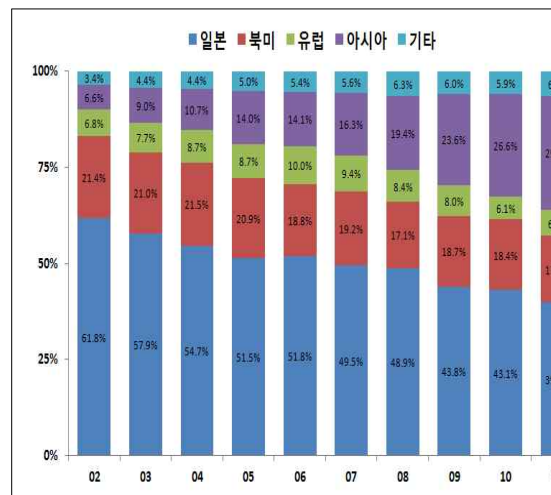
도요타의 해외 생산 현황

<생산법인 분포>



자료: 도요타

<지역별 생산비중>



자료: 도요타

- 도요타는 생산 공장을 신설을 통해 인도네시아 생산을 확대할 방침으로 지난 40년간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금액과 비슷한 3조원을 투자하여 현재 생산능력 39만대에서 66만대로 늘릴 계획

도요타 / 다이하츠 인도네시아 공장 현황 및 계획

브랜드	공장별 생산		주요 생산모델
도요타	카라왕	1공장 :11만 대 → 14만 대	이노바, 포튜너, 아반자
		2공장 : 7만 대 (2013년 가동)	신형차(미정)
다이하츠	순터공장 : 28만 대 → 35만 대		세니아, 아반자, 리쉬 루시오, 테리오스 등

자료: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재인용

서플라이 체인 재구축

- 효율적인 생산과 빠른 현지 시장 수요 대응을 위해 기존의 서플라이 체인⁸⁾의 재구축 추진
 - 동일본 대지진, 태국 대홍수 등으로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은 일본 기업들은 국내 소수의 부품 업체에 집중되어 있던 서플라이 체인을 다각화함으로써 생산 리스크를 분산
 - 서플라이 체인을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 생산법인을 통한 역수입, 현지 조달, 생산 거점 해외 이전을 모두 고려
 - 일본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완성차업체의 해외생산 확대 계획에 발맞춰 동반진출을 적극 추진
 - 또한 부품 표준화를 통해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각 국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 마련 계획
 - 핵심 부품은 차별화를 유지하되 비핵심 제품과 소재 부문은 표준화하여 개발 효율화 제고 및 원가 절감 기대
 - 일본국제협력은행 조사에 따르면 65.0%의 기업들이 현지 조달 비율을 확대할 예정인 반면, 일본으로부터 조달을 확대할 계획인 기업들은 9.7%에 불과

일본 기업의 중기 부품 조달 계획

(%)

결정 기준	현지 조달	국내 조달
증가	65.0	9.7
유지	24.9	26.0
감소	0.9	52.5
미정	9.2	11.8

자료: 일본 국제협력은행

8) 원재료, 부품, 생산, 유통을 거쳐 최종소비자에 이르는 상품의 연쇄적인 생산 및 공급 과정

일본 기업의 서플라이 체인 재구축 사례

- 히타치제작소는 해외에서 조달하는 주요 부품의 비율을 '09년도의 25%에서 3년 후에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50%로 높일 계획
- 리코는 일본에서 전량 생산하고 있던 컬러 복합기용 토너의 생산 공장을 미국에 신설 추진
- 도요타는 도요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TNGA)를 통해 약 5,000개에 이르는 부품 중 우선 20~30%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닛산도 프랑스 르노와 부품 공용화 비율을 현재 10% 수준에서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
-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도요타와 인도네시아 동반 진출

도요타 계열 부품기업 인도네시아 투자 확대 주요 내용

기업명	생산 품목	주요 내용
덴소	에어컨,라디에이터	전 품목 증산, 공장 신설 검토
도요타자동차기	에어컨용 컴프레서	2015년까지 현재 대비 60% 증산
도요타방직	카시트	현재 대비 40% 증산
도요타철공	차체용 부품	2012년 완공목표로 재2공장 건설 중
시로키공업	윈드레굴레이터 등	공장 신설로 40만~50만 대분 생산

자료 : 일간공업신문, 코트라 재인용

현지화

□ 저임노동 획득형에서 매출확대를 노린 시장획득형으로 전환

- 과거 일본은 개도국의 저임노동활용 목적의 해외투자가 활발 하였으나, 최근에는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투자 비중이 증가
- 경제산업성 조사에 따르면, 저임노동력 확보 목적의 투자는 23.5%에 불과하며, 현지의 수요 증가 및 시장확대 목적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일본 기업의 해외투자 결정기준 변동 추이

(%)

결정 기준	2004년	2009년	2011
현지 제품수요 확대	64.5	70.0	73.3
인접국 제품수요 확대	19.1	24.6	26.4
관련 일본기업의 진출실적	39.9	24.7	32.2
양질의 저임노동력	53.1	28.2	23.5
일본에 역수입	15.2	11.5	8.7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복수응답허용)

□ 밸류체인 전반의 현지화

- 해외 R&D 센터를 설립하여 국가별로 다른 고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
- 또한 현지 판매망과 외국인 채용을 확대하는 등 기획, 설계, 판매, 인력 등 경영 전반에 걸친 현지화 도모

일본 기업의 현지화 전략 사례

- 소니는 인도의 중산층 소비자를 겨냥해 19인치, 26인치 독자 모델을 개발하면서 TV 좌우에 대형 스피커를 탑재하여 음악과 댄스를 즐기는 인도인의 기호에 대응
- 도요타는 해외 판매 차량의 기술 개발을 현지로 분산할 방침으로 최근 미국 현지에서 개발된 중형차 ‘아발론’을 출시하였으며, 현지화 강화를 위해 미국 기술자 수를 20% 이상 늘리고 자동차와 정보기술 융합을 위해 실리콘밸리에 연구센터 설치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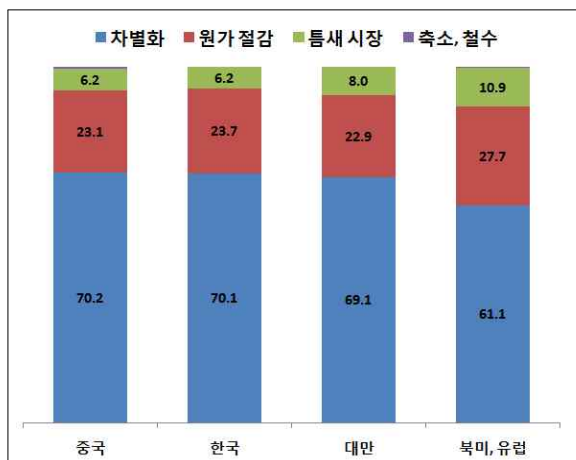
자료: 언론 종합

□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통한 차별화 대응

- 일본 국제협력은행 조사에 따르면 외국 기업들과의 중기 경쟁 전략으로 차별화 전략을 계획 중인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미국·유럽 기업들에 대해서는 원가 절감을 계획 중인 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경쟁 전략 실행을 위한 전략적 제휴 파트너로는 현지기업을 우선 순위로 꼽았으며, 이를 통해 현지 판매망 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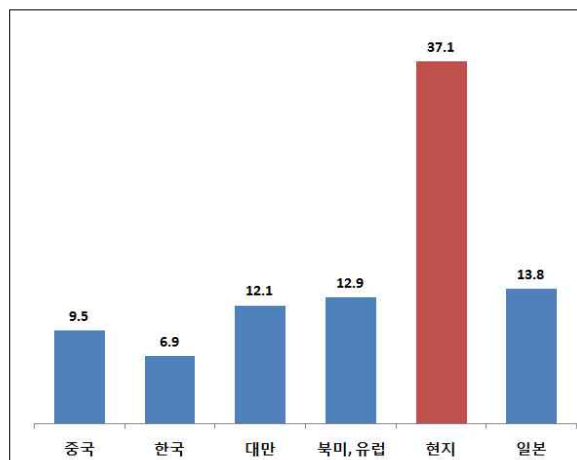
일본 기업의 경쟁력 제고 전략

<중기전략>



자료: 일본 국제협력은행

<ASEAN 5 전략적 제휴>



자료: 일본 국제협력은행

세그먼트 마케팅

□ 신흥국 중산층 중심으로 소득계층별 차별화된 해외시장 개척

- 일본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선진국 고소득 시장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나, 금융위기와 선진국 경기 침체로 인해 성장에 한계 노출
- 또한 성장 잠재율이 높은 신흥국 시장에서 고품질, 고가격 정책으로 인해 과잉품질 문제 발생
- 이에 따라 국가별, 소득 계층별로 품질, 기능, 가격을 차별화하는 세그먼트 마케팅 전략을 수립

- 특히 신흥국 중산층인 볼륨존⁹⁾으로 타겟 시장을 전환함으로써 현지 부품 조달, 생산 원가 절감, 고가격 정책의 폐기 등을 포함한 기업 전략을 대폭 변화
- 상위 소득층에는 일본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한 고품질, 고가격의 프리미엄 제품 판매
- 아프리카 중심의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하는 BOP¹⁰⁾ 시장도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

소득계층별 일본의 진출 전략

소득계층	전략	내용
상위층	기존전략	선진국과 동일한 고품질 제품 투입
중산층	볼륨존 전략	현지수요 고려한 적정 품질의 제품 투입
하위층	BOP	정부의 지원제도를 통한 기업진출 모색

볼륨존 전략 사례

- 파나소닉은 인도네시아나 인도에서 현지의 생활양식에 맞춘 냉장고, 액정TV를 판매
- 산요전기는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저가격의 액정 TV를 생산, 판매
- 도시바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현지의 생활양식에 맞춘 약 40 종류의 냉장고 및 세탁기를 연도 내 판매

자료원: 코트라

9) 볼륨존(volume zone)은 2009년 경제산업성의 통상백서(white paper)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연간 가계 가처분 소득이 5,000~35,000달러인 중산층 8.8억명을 지칭

10) BOP(Bottom of Pyramid)란 피라미드의 밑바닥, 최하 소득계층을 뜻하는 말로 연간 3000달러 미만으로 사는 BOP계층은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하며 소비시장 크기가 5조 달러에 이를 정도로 잠재력이 풍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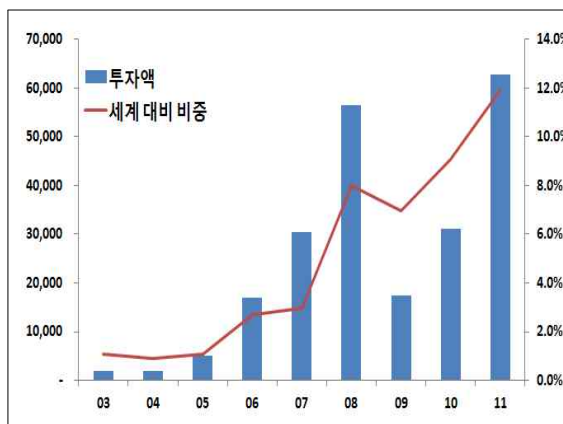
M&A 강화

□ 금융 위기 이후 M&A 강화

- 2008년 564억불에서 2009년 174억불로 위축되었으나, 2년 연속 빠르게 회복되어 2011년 627억불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세계 M&A 시장에서의 일본 비중은 11.9%까지 상승
- M&A 건수의 경우도 2003년 57건에서 2011년 265건으로 크게 증가하여 일부 대규모 거래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M&A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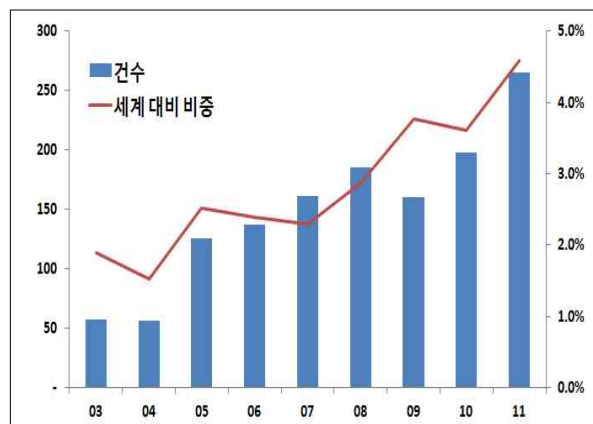
일본 기업의 M&A 추이

<금액>



자료: UNCTAD

<건수>



자료: UNCTAD

□ 금융위기 이후 일본 기업의 해외 M&A는 해외자원개발, 기술, 생산·판매 등 3개 분야에서 활성화¹¹⁾

- 철광석, 비철금속, 농축산물 등 해외자원개발은 남반구의 중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출
- 중남미(구리, 철광석, 농축산물), 오세아니아(주석, 원료탄), 아프리카(원유, 가스)

11) 포스코경영연구소, 일본기업의 해외 M&A 가속화 특성 및 영향 분석 인용

- 항공, 가스 인프라, 정밀기계, 제약 등 차세대·첨단 분야는 유럽과 북미 등 서북반구 지역을 통해 추진
- 생산·판매의 경우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 분야는 아시아, 구소련 지역 등 동북반구 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
 - 동북아(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동남아(조선, 건설), 서남아(기계, 철강), 구소련(자동차)

해외 M&A 사례

- 미츠비시사는 Anglo American Sur SA사로부터 칠레의 동광산을 54억불에 인수
- Takeda사는 2011년 스위스 제약회사인 Nycomed 주식 전체를 137억불에 취득, 동 건은 일본 제약회사의 해외 M&A 중 최대 규모로 Takeda사는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10위권 진입
- 소프트뱅크는 미국 3대 무선통신업체인 스프린트 넥스트텔의 지분 70%를 201억불에 매수하였으며, M&A 이후 소프트뱅크는 세계 3위의 이동통신 회사로 도약

자료원: 언론 종합

패키지형 해외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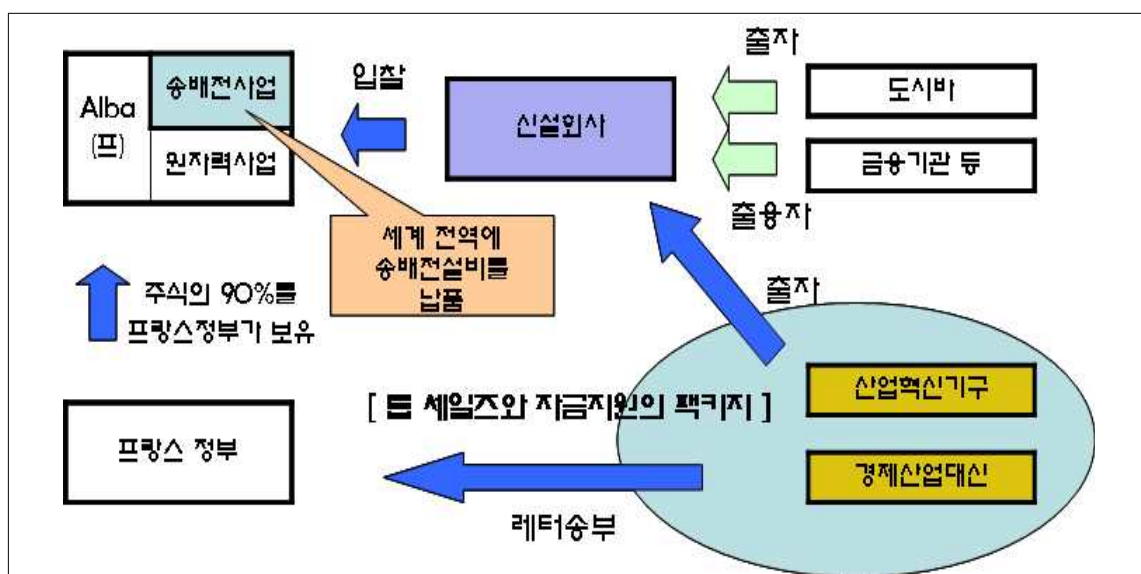
-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기업들의 인프라 산업 해외진출 등을 국가 전략 및 정책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 산업구조비전 2010이 제시하고 있는 전략은 ① 인프라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② 금융지원 ③ 개도국 수요에 대한 일본기업의 전략적 매칭 ④ 정상외교 등의 강화임

- 국가전략적 측면에서 중요 투자안전에 대해서는 ODA나 정책 금융지원, 외교라인 등 All Japan 종합 지원 패키지로 추진

일본 정부의 All Japan 해외 세일즈 사례

- 2010년 11월 도시바의 프랑스 원자력기업 송배전사업 매각안전 입찰시, 민관 합동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출자를 결정하고 경제산업성 장관이 프랑스정부에 대해 톱 세일즈 실시

All Japan 해외진출 지원 사례(프랑스 송배전사업)



- 인도 델리-뭍바이 산업철도 프로젝트 총 비용의 80%인 4,000억 엔을 차관으로 지원하는 대신 일본에서 설비 조달

자료: 언론 종합

□ 스마트 커뮤니티¹²⁾ 해외진출을 위해 민관 협조 체제 구축

- 스마트 커뮤니티는 스마트그리드¹³⁾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건설, 교통, 하수 처리, IT 산업 등을 융합하여 최적화된 토탈 솔루션

12) 스마트그리드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건설, 교통, 하수 처리, IT 등 모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최적화를 실현하는 차세대의 환경 친화형 지역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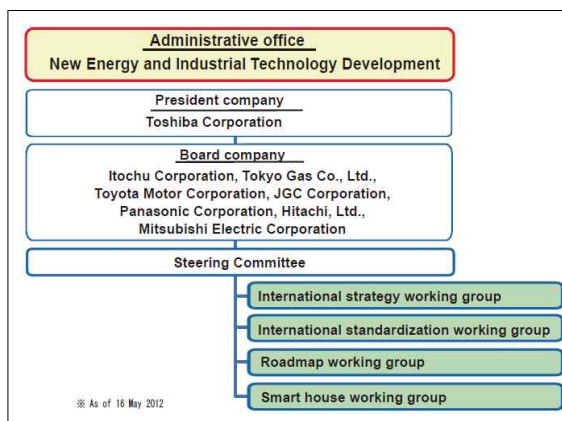
13) 기존 전기 공급구조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실시간 정보 교환을 통해 에너지 생산 및 소비를 최적화시켜주는 차세대 전력망

선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향후 동 사업을 수출패키지로 육성한다는 계획

- 히타치, 도시바, 미쓰비시 등 종합전기 3사는 소비자 가전 사업 부문 비중을 축소하고, 스마트 커뮤니티 사업을 확대
- 2010년 4월 신에너지 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NEDO;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의 주도 하에 도시바, 히타치, 이토추 등 287개 기업이 참여한 일본 스마트 커뮤니티 협회(JSCA: The Japan Smart Community Alliance)를 설립
- 장기 로드맵 수립, 국제표준화 마련, 사업성 검토 등을 진행 중이며, 미국, 중국, 인도 등 해외 13개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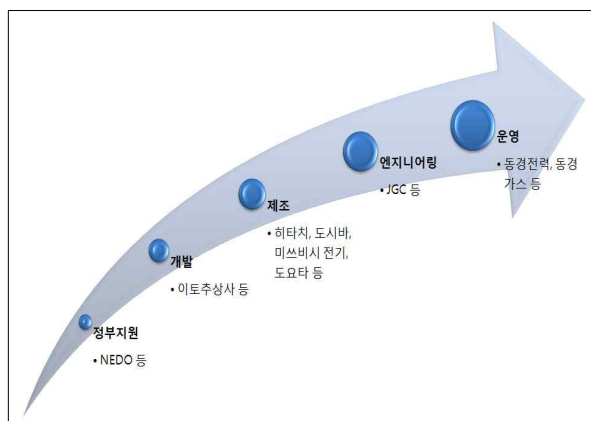
JSCA 운영 구조

<조직도>



자료: JSCA

<참여기업>



자료: JSCA, 삼성경제연구소

V

한·일간 주요 특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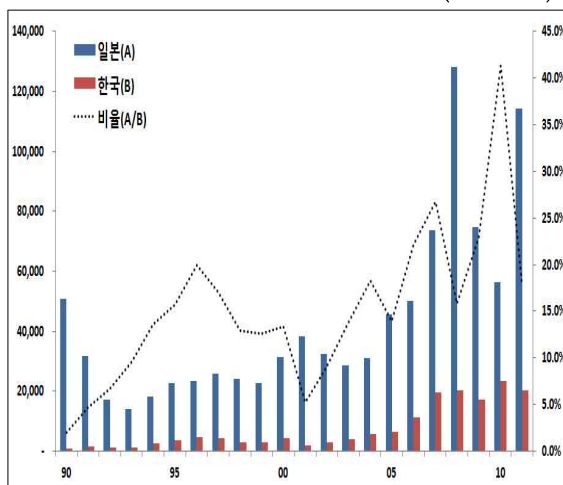
□ 일본, 우리나라 투자잔액의 6배

- 일본에 비해 해외투자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는 2011년말 기준 투자잔액이 일본의 16.5%에 불과
-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연간 투자금액은 일본의 10%에도 미치지 못 하였으나, 최근에는 일본의 41.4%까지 달하는 등 빠르게 증가

한일 해외직접투자 추이 비교

<유량(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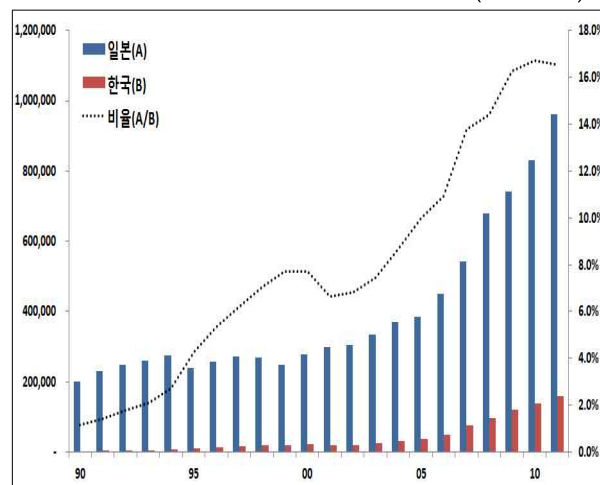
(백만불)



자료: UNCTAD

<저량(stock)>

(백만불)



자료: UNCTAD

□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잔액의 비율은 양국 모두 15%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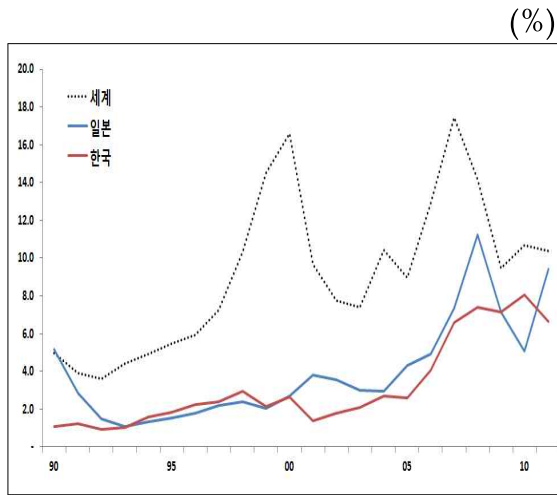
- 2011년 기준 총고정자본형성¹⁴⁾ 대비 투자금액은 일본 9.4%, 한국 6.6%, GDP 대비 투자잔액은 일본 16.5%, 한국 14.3%임
- 두 비율의 증가 추이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 평균과 비교하여서는 낮은 편

14) 총고정자산투자(GFCF;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 장기간에 걸쳐 생산에 반복·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유무형의 고정자산의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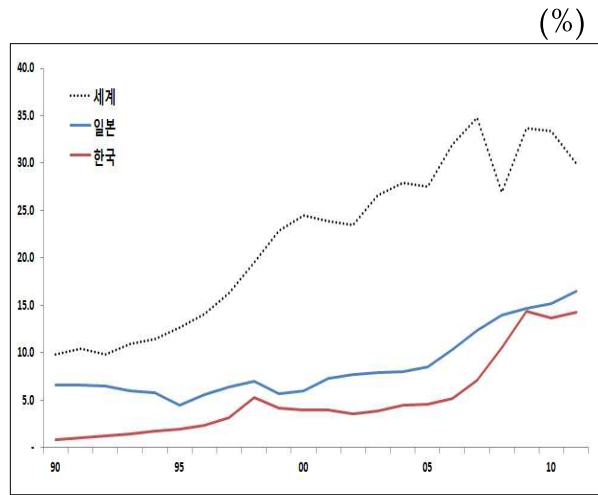
한일 해외직접투자 비교

<GFCF 대비 투자>

<GDP 대비 잔액>



자료: UNCTAD



자료: UNCT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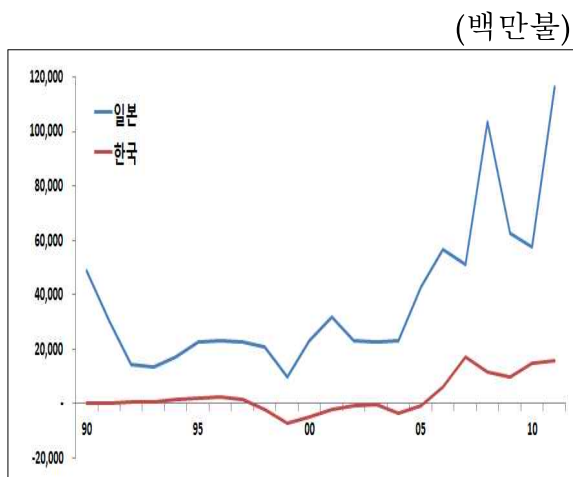
□ 일본은 전형적인 해외직접투자 유출국

- 2011년말 잔액 기준으로 유입액 대비 유출액이 4.3배로 우리나라의 1.2배 보다 높은 수준
- 직접투자의 순유출액은 양국 모두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투자가 외국인투자를 초과하는 단계에 진입하여 선진국형으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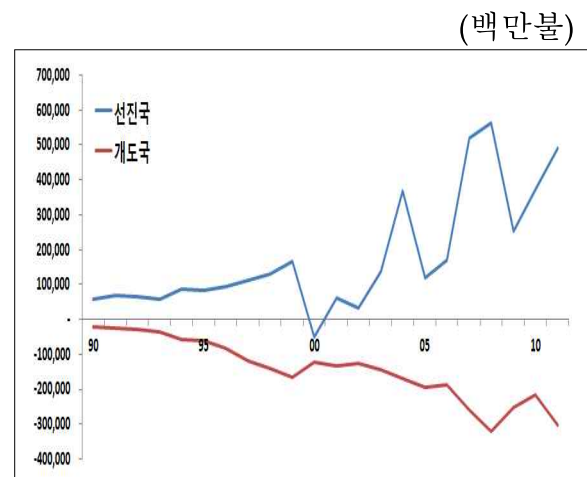
직접투자의 순유출액 비교

<일본/한국>

<선진국/개도국>



자료: UNCTAD



자료: UNCTAD

□ 소득수지가 무역수지를 초과

- 일본의 무역수지는 감소하고 있으나, 투자소득 수지는 증가하면서 2006년부터 투자소득수지가 무역수지를 초과
 - 2012년 무역수지는 5.8조엔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투자소득수지는 14.3조엔 흑자를 기록(직접투자소득수지는 4.2조엔)하여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
 - 해외직접투자로부터의 수익에 해당하는 직접투자소득수입은 2012년 5.4조엔으로 경상수지 감소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0년 0.6조엔에 비해 6.1배 증가하여 해외사업 기반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
- 우리나라 2012년 투자소득수지는 54억불로 무역수지 383억불과 비교하여 크게 낮으며, 이 중 직접투자소득수지는 8억불 적자
 - 직접투자소득수입은 2000년 5억불에서 2012년 53억불로 10년만에 10.9배 증가하여 성장세가 빠른 편이나 달러 기준으로 일본의 7.8%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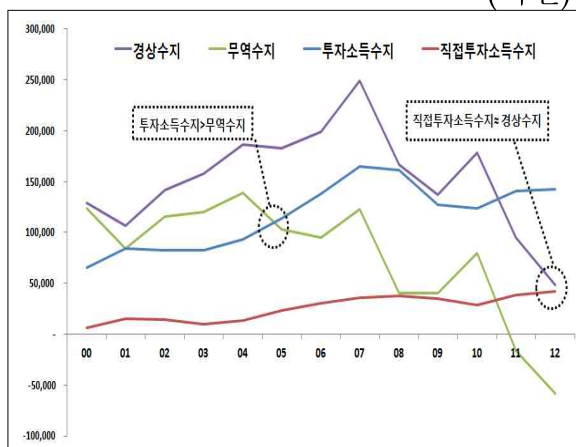
한일 직접투자 소득수지 비교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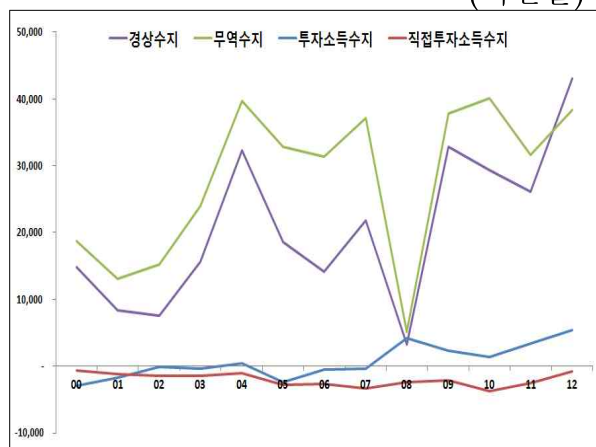
<한국>

(억엔)

(백만불)



자료: 일본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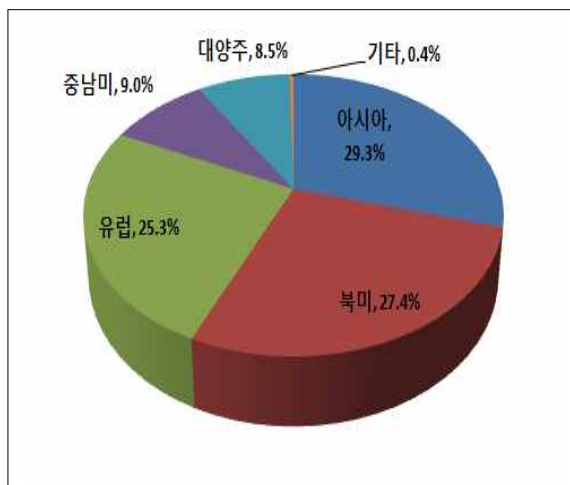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선진국 투자 비중이 높아

- 일본의 지역별 투자 비중은 북미 27.4%, 아시아 29.3%, 유럽 25.3%, 중남미 9.0%, 대양주 8.5%
- 우리나라는 아시아 46.1%, 북미 22.6%, 유럽 17.1% 등으로 아시아 투자 비중이 일본보다 높고, 북미와 유럽 비중은 낮으며, 중남미와 대양주 등 기타 지역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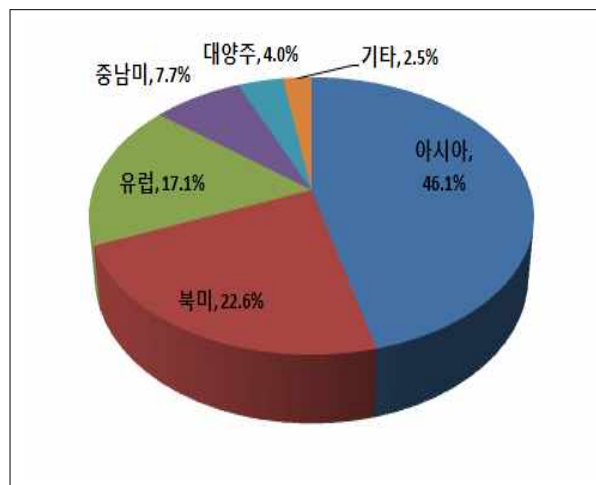
한일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잔액 구성 비교

<일본>



자료: 일본 무역진흥회(2012년말)

<한국>



자료: 수출입은행(2012년말)

- 일본의 최대 투자국은 미국(28.6% 비중)이며, 이어 네덜란드, 중국, 케이만군도, 호주 등이 뒤를 잇고 있음
- 우리나라는 중국 (19.0%), 미국, 홍콩, 영국, 베트남 순
- 중국과 홍콩 이외 아시아 국가의 경우, 일본은 태국, 싱가포르, 한국, 인도네시아, 인도, 한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순으로 투자 규모가 큼

한일 주요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잔액 비교

(백만불, %)

	일본			한국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	미국	275,504	28.6	미국	32,634	19.0
2	네덜란드	84,950	8.8	중국	32,024	18.6
3	중국	83,379	8.6	홍콩	11,954	7.0
4	케이만군도	67,982	7.0	영국	7,744	4.5
5	호주	49,417	5.1	베트남	7,646	4.5
6	영국	48,194	5.0	캐나다	6,144	3.6
7	태국	35,178	3.6	호주	5,408	3.1
8	브라질	33,982	3.5	네덜란드	5,172	3.0
9	싱가포르	31,703	3.3	인도네시아	5,154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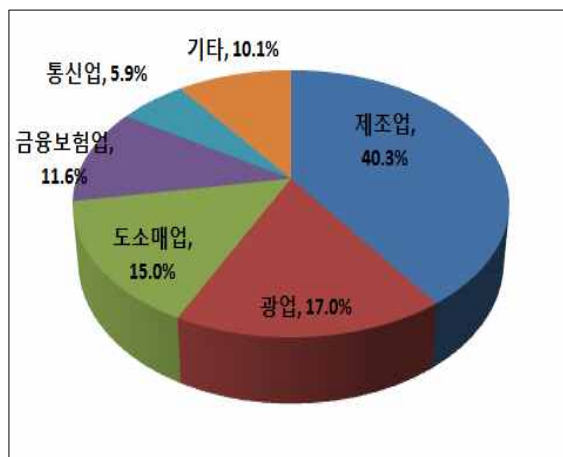
자료: 일본은 일본 무역진흥회 2011년, 한국은 수출입은행 2012년 기준

□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 집중 두드러져

- 일본의 주요 투자 업종 비중은 제조업 40.3%, 금융보험업 11.6%, 도소매업 15.0% 등으로 각각 우리나라 34.8%, 12.2%, 8.7%에 비해 높음
- 광업은 17.0%로 우리나라 19.6%에 비해 낮는데 이는 최근 우리나라 해외투자가 광업 주도로 증가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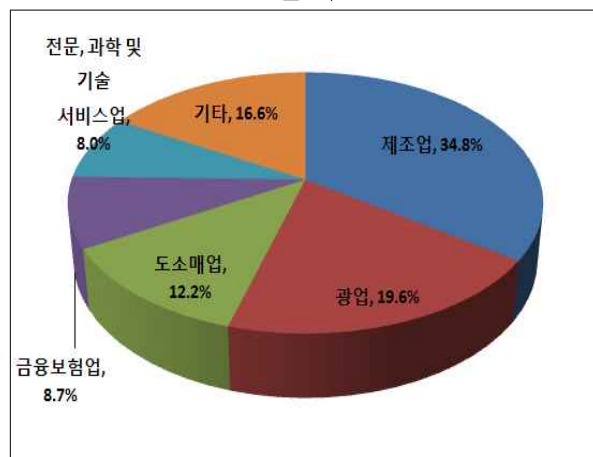
한일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비교

<일본>



자료: 일본은행(2012년말)

<한국>



자료: 수출입은행(2012년말)

□ 일본은 한국에 비해 세계화의 성숙단계에 진입

- 일본의 현지법인 매출액은 2011년 2조 2,843억불에 달하며, 우리나라 현지법인의 매출액은 5,535억불로 일본의 24.2%에 불과

한일 현지법인 매출액 비교

(억불, %)

연도	전산업			제조업		
	일본(A)	한국(B)	비율(B/A)	일본(A)	한국(B)	비율(B/A)
2005	16,790	1,971	11.7	7,936	846	10.7
2006	18,421	2,970	16.1	8,573	1,657	19.3
2007	20,057	3,147	15.7	9,429	1,579	16.8
2008	19,517	3,587	18.4	8,824	1,655	18.8
2009	17,585	3,807	21.6	8,372	1,864	22.3
2010	20,872	4,788	22.9	10,178	2,629	25.8
2011	22,843	5,535	24.2	11,067	3,062	27.7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재가공, 한국수출입은행

- 일본의 현지법인 매출액은 2011년 총수출의 278.0%(제조업 134.7%)에 달하며 추세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동 비율이 전체 산업은 2005년 69.3%에서 2011년 99.7%로, 제조업은 29.7%에서 55.2%로 점증하고 있으나 아직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총수출 대비 현지법인 매출의 비율 추이

(%)

연도	일 본		한국	
	全산업	제조업	전산업	제조업
2005	281.7	133.1	69.3	29.7
2006	284.7	132.5	91.3	50.9
2007	281.4	132.3	84.7	42.5
2008	248.9	112.5	85.0	39.2
2009	303.6	144.6	104.7	51.3
2010	271.8	132.5	102.7	56.4
2011	278.0	134.7	99.7	55.2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한국수출입은행

□ 일본 현지법인의 수익성은 한국을 압도

- 2011년 일본의 현지법인 당기순이익은 92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우리나라 현지법인은 123억불로 일본의 13.3%에 불과
- 다만, 2005년 일본의 1.2%(제조업은 1.8%)에 불과하였던 현지법인의 수익성이 2011년 13.3%(제조업은 17.3%)까지 비율이 상승

한일 현지법인 당기순이익 비교

(억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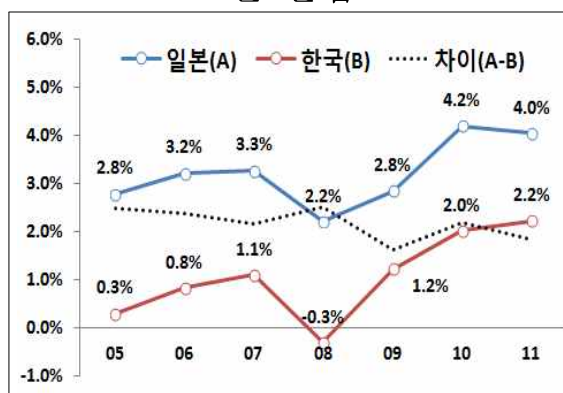
연도	전 산업			제조업		
	일본(A)	한국(B)	비율(B/A)	일본(A)	한국(B)	비율(B/A)
2005	467	6	1.2	248	5	1.8
2006	592	25	4.2	307	13	4.3
2007	656	35	5.3	356	17	4.8
2008	431	-11	n.a.	160	0	0.1
2009	501	47	9.3	256	46	17.9
2010	877	96	11.0	468	60	12.9
2011	925	123	13.3	383	66	17.3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일본은행 환율 적용), 한국수출입은행

- 2011년 기준으로 전 산업의 당기순이익률은 일본이 4.0%, 한국이 2.2%이며, 제조업의 경우는 각각 3.5%, 2.2%임
- 다만, 전 산업의 경우 2005년 양국 차이가 2.5%에서 2011년에는 1.8%로, 제조업은 2.6%에서 1.3%로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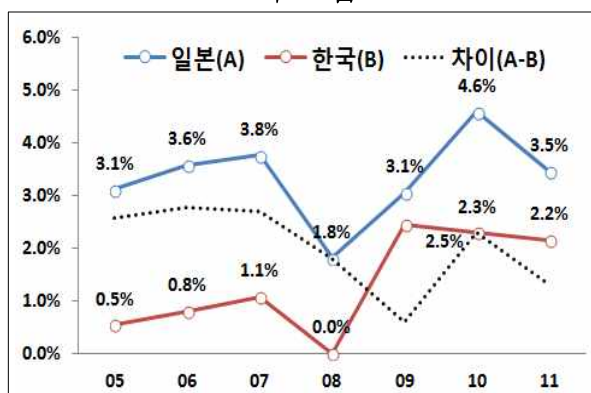
한일 현지법인 당기순이익률 비교

<전 산업>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수출입은행

<제조업>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수출입은행

IV

시사점

□ 일본, 엔저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는 지속될 전망

- 엔저가 일본 해외투자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기존의 국내 경영환경 악화의 요인으로 지적되온 요인¹⁵⁾들은 단 기간 내에 해소되지 못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지진 발생지인 동북 및 동일본 지방뿐만 아니라 중부지방의 전력사정 악화로 화력발전 비율 상승과 전기 요금 상승이 불가피해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불가피
- 또한 신흥국 중산층을 겨냥한 기업 경영전략의 변화로 해외투자의 증가가 지속되고, 원가 절감형에서 현지 판매형, 가공조립 산업에서 소재 및 장치산업 등으로 투자 분야가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기업과의 해외시장 경쟁 불가피

- 일본 기업은 고품질·고가격을 고집하고 국제표준화에 부응하지 않은 전략적 실패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여전히 기술¹⁶⁾, 노하우, 시스템, 인력 등 소프트웨어는 세계적 수준
- 일본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하여 선진국 중심에서 아시아 중심의 신흥국 진출로 대외전략에 전면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 자동차, LCD, 핸드폰 등 우리 기업의 주력 제품이 판매 호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 기업이 중품질, 중가격 제품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시장을 잠식 당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

15) ① 지속적인 엔고, ② 높은 법인세율, ③ 인건비 부담 및 노동 규제, ④ 엄격한 환경 규제, ⑤ FTA 체결 부진으로 인한 무역자유화 지체, ⑥ 전력 수급 불안

16) 액정용 부품 소재 중 컬러필터, 편광판 보호필름, 유리기판, 편광판, 액정용 Photo Mask, 반도체제조용 부품소재 중 Encapsulant, 플라스틱기판, Bonding Wire, 리드 프레임, 실리콘웨이퍼 등에서 압도적 시장지위를 점하고 있음.

- 신흥국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통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시장에서 주력 제품의 발빠른 변화를 선도하는 전략 필요
- 또한 현지 수요에 맞는 유연한 제품 개발과 원가 절감을 위해 현지 조달 체제를 강화하되, 대기업과 동반진출 업체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 일본 기업 앞 부품 공급 및 협력 강화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메이저 기업들은 해외 중심으로 서플라이체인을 재구축하고 있는 바, 우리 부품업체들은 일본 시장 및 현지진출 일본기업 앞 제품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
- 일본기업의 생산거점 해외이전과 관련하여 부품, 소재, 첨단 산업의 대 한국 투자 유치를 통해 일본 기업의 원천기술 습득과 수입대체 효과를 도모
- 한편 일본 기업은 IT,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한국 기업과 경쟁 관계인 동시에 협력 관계¹⁷⁾ 유지
- 기술력이 우수한 일본 기업 앞 자본 참여, 국제 표준 제정에 공동 대응, 한일 부품 공동화 추진 등 협력 범위를 보다 확대

□ 해외투자의 질적 성장을 통한 우리 기업의 세계화 추진

- 일본은 한국에 비해 해외투자 역사가 길고 현지법인의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였으나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일본에 비해 미흡

17) 경쟁 관계에 있는 삼성과 소니, LG전자와 히타치, 포스코와 신일본제철 등은 한국, 일본 또는 제3국에서 합작법인을 설립·운영 중에 있는 등 전략적 제휴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2013년 3월 삼성전자는 대형 TV 패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모바일 기기용 중소형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3월 샤프에 약 1천 200억원을 투자해 전체 지분의 3%를 인수

- 한일 주요 기업의 세계화지수를 살펴 보면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해외매출 비중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해외자산과 해외고용 비중은 일본 기업에 비해 크게 낮음

한일 주요 기업의 세계화지수

(백만불, 명, %)

	자산		매출		고용		세계화 지수
	해외	해외비중	해외	해외비중	해외	해외비중	
혼다	105,151	73.4	78,134	77.7	109,400	61.1	70.7
닛산	71,912	53.4	90,879	76.3	82,223	53.0	60.9
소니	73,839	45.7	55,543	67.6	109,200	64.9	59.4
도요타	214,117	57.5	142,888	60.8	123,655	37.9	52.1
삼성전자	18,075	15.3	111,394	83.3	94,802	49.8	49.4
현대차	32,558	31.3	49,342	50.7	23,724	22.8	34.9

자료: UNCTAD

주: 세계화지수는 자산, 매출 및 고용 해외비중의 가중 평균

-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2000년대 중반 들어 양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였으나, 아직 질적 성장은 부족
 - 일본 현지법인의 수익성은 한국을 압도하고 있으며, 직접투자를 통한 소득수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경상수지의 감소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히 우리 기업의 최근 해외투자가 현지 시장 진출 목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법인의 수익성 제고와 배당금의 국내 회수 등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
- 우리 기업의 제조업 해외 투자는 상당 부분 진전되었으나, 연관 산업에 대한 투자는 아직 미흡하므로 투자 업종의 다변화 및 현지화 강화 필요
 - 생산 뿐만 아니라 R&D, 현지 유통망, 서비스 등 전후방 연관 산업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경영 전반을 현지화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 ODA 연계 및 민관 협력 강화

- 일본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별, 산업별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유도
 - ASEAN 국가와 인도 등지에서 원자력, 친환경, IT, 도시개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한편 대다수 국가의 ODA는 해외투자와 상관 관계가 높지 않으나, 일본의 ODA는 수혜국에 대한 일본 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한 것으로 분석¹⁸⁾되며, 수혜국 입장에서 ODA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자국 유치와 경제 개발 효과가 더 큼
 - 따라서 수혜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한 ODA 지원을 통해 국가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현재보다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 등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 필요

18) Is Foreign Aid a Vanguard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HIDEMI KIMURA, 2010), Does Korea follow Japan in foreign aid? Relationships between aid and foreign investment(강성진 외 2인, 2011)

<참고 문헌>

코트라(2005. 8), 한중일 직접투자동향 분석

코트라(2011), 일본기업 제3국 시장 진출 현황

코트라(2011), 일본기업의 생산거점 이전 현황 조사

산업연구원(2013), 최근 엔화환율 변동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0) 한중일 역내 직접투자 동향과 활성화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전략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
모색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2010) 신흥국에서 활로를 모색하는 일본기업

삼성경제연구소(2011), 일본의 서플라인체인 재구축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2012) 일본 전자기업 실적 변화의 명암

LG경제연구원(2011) 일본 기업의 볼륨존 전략

한국무역협회(2013), 최근 엔화약세와 우리 수출에의 영향

포스코경영연구소(2012), 일본 기업의 해외 M&A 가속화 특성 및 영
향 분석

(참고자료 1)

일본의 지역/주요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백만불)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아시아	16,188	17,167	19,388	23,348	20,636	22,131	39,492	33,477
중국	6,575	6,169	6,218	6,496	6,899	7,252	12,649	13,479
Asia NIES	4,902	3,893	6,039	5,842	5,907	6,902	9,302	8,043
홍콩	1,782	1,509	1,131	1,301	1,610	2,085	1,509	2,362
대만	828	491	1,373	1,082	339	-113	862	119
한국	1,736	1,517	1,302	2,369	1,077	1,085	2,439	3,996
싱가포르	557	375	2,233	1,089	2,881	3,845	4,492	1,566
ASEAN4	4,276	6,038	5,007	4,043	3,540	4,310	13,204	6,397
태국	2,125	1,984	2,608	2,016	1,632	2,248	7,133	547
인도네시아	1,185	744	1,030	731	483	490	3,611	3,810
말레이시아	524	2,941	325	591	616	1,058	1,441	1,308
필리핀	442	369	1,045	705	809	514	1,019	731
베트남	153	467	475	1,098	563	748	1,859	2,570
인도	266	512	1,506	5,551	3,664	2,864	2,326	2,802
북미	13,168	10,188	17,385	46,046	10,889	9,016	15,166	35,768
미국	12,126	9,297	15,672	44,674	10,660	9,193	14,730	31,974
캐나다	1,042	892	1,713	1,372	229	-177	436	3,796
중남미	6,402	2,547	9,482	29,623	17,393	5,346	11,287	10,454
멕시코	629	-2,603	501	315	211	688	264	1,023
브라질	953	1,423	1,244	5,371	3,753	4,316	8,290	4,113
케이만군도	3,915	2,814	5,838	22,550	12,903	-1,848	223	2,276
대양주	943	723	4,204	6,060	7,629	6,407	8,767	11,075
오스트레일리아	640	466	4,140	5,232	7,136	6,371	8,149	10,890
뉴질랜드	62	125	-22	635	237	-61	149	127
유럽	8,230	18,396	20,965	23,068	17,830	15,043	39,841	31,017
독일	270	1,128	880	3,905	2,089	-321	2,165	1,797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영국	2,903	7,271	3,026	6,744	2,126	4,624	14,125	11,882
	프랑스	541	842	479	1,703	1,161	551	116	2,291
	네덜란드	3,315	8,497	12,440	6,514	6,698	3,288	5,346	8,638
	이탈리아	44	51	45	177	110	372	1,007	141
	벨기에	-195	133	796	2,196	423	-166	-168	495
	룩셈부르크	25	-478	2,291	527	3,279	-108	330	-73
	스위스	56	183	61	165	221	143	2,336	1,509
	스웨덴	82	416	254	570	160	-623	-95	2,217
	스페인	363	136	10	210	162	38	124	-4
	러시아	95	160	99	306	391	350	339	757
중동		542	242	958	1,138	575	-348	716	447
	사우디	494	254	746	892	378	117	104	41
U.A.E.		19	-56	60	194	139	-498	207	364
아프리카		25	899	1,101	1,518	-301	-372	464	116
	남아프리카공화국	-17	466	82	648	143	104	459	370
합계		45,461	50,165	73,483	130,801	74,650	57,223	108,808	122,355

참고

EU		5,002	6,923	7,790	6,309	7,002	8,930	19,645	10,675
ASEAN		7,872	17,925	19,934	22,939	17,039	8,359	36,052	29,023

(참고자료 2)

일본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백만불)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제조업	26,146	34,513	39,515	45,268	32,934	17,803	57,952	49,250
식품	1,685	1,025	12,776	3,601	8,954	2,017	8,149	2,364
섬유	416	180	371	716	477	377	672	927
목재·펄프	826	420	745	734	1,207	1,068	1,268	1,166
화학·의약	3,363	4,413	3,744	11,647	7,407	7,902	19,618	6,494
석유	531	2,921	-280	652	-51	-837	216	491
고무·가죽	831	1,107	835	771	445	634	715	1,853
유리·세라믹	258	2,759	837	1,417	2,042	377	1,325	1,922
철강·비철	1,331	1,795	2,202	3,152	3,738	3,873	5,017	4,206
일반기계	1,296	1,663	2,642	3,726	4,411	4,385	5,655	7,979
전기기계	4,377	7,041	4,691	5,675	2,505	1,361	7,334	6,707
운송장비	8,611	8,597	8,671	10,924	566	-3,582	4,132	10,465
정밀기계	1,419	1,420	1,293	953	609	51	2,791	3,219
비제조업	19,315	15,652	33,968	85,533	41,717	39,420	57,780	73,102
농임업	23	42	93	59	10	145	250	101
어업	-44	28	64	119	36	47	-7	40
광업	1,372	1,577	4,053	10,518	6,482	9,061	16,477	20,934
건설	148	-64	490	389	499	302	436	870
운송	824	1,507	2,133	2,283	2,894	2,294	1,606	870
통신	1,712	-3,368	-331	1,675	3,870	9,899	-1,799	7,208
도소매업	4,623	5,483	4,792	13,319	8,418	1,946	12,407	18,372
금융보험업	9,227	5,562	19,458	52,243	15,463	11,397	19,111	14,210
부동산업	-851	-811	162	162	463	765	2,447	2,469
서비스업	1,086	188	1,406	2,721	2,163	1,596	4,022	4,350
합계	45,461	50,165	73,483	130,801	74,650	57,223	108,808	122,355

(참고자료 3)

일본 정부의 경제 대내외 주요 정책

산업공동화 극복 및 일본 경제 문제 해결	
	중요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 핵심 부문 생산기반 및 R&D센터 설립 촉진 등
	국내 경영환경의 개선
	· 법인세 인하, 내수시장 활성화, 아시아 거점화 등
	파트너십 강화
	· 유럽, 한중일 FTA, TPP 협상 참여
신성장 동력 확보 및 경제의 세계화	
	국내수요 확장과 신시장 창조
	·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비즈니스모델 수립
	민관 협력을 통해 신흥국 시장 공략
	· 해외 사업 지원, 인프라 수출의 전략적 추진
	중견·중소기업 사업역량 강화
	· M&A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